119구조대 작년 1분에 1번 출동

80만5194회 출동…79명당 1명꼴 도움
벌사고 23.6% 최다…동물 · 화재사고 順

지난 한해 동안 119구조대가 1분에 1번씩 출동했으며 국민 79명중 1명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이 지난해 119구조대가 출동한 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80만5194회를 출동해 65만5485건을 처리, 11만5595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1분마다 1건 이상의 국민이 구조를 요청하고 국민(5177만8544명) 79명중 1명 꼴로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은 셈이다.

또 2016년 대비 구조출동은 6.4% 증가했다.

특히 관할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인 서울·경기에서 44.6%(29만2306건)로 구조 수요가 가장 많았다. 반면 인구가 적은 세종시는 0.9%(1145명)로 가장 적었다.

전체 구조건수중 23.6%(15만4436)를 차지한 벌 관련사고가 전년에 이어 올해도 사고유형별 1위를 차지했다.

동물관련사고 11만581건(16.9%), 화재사고 8만5372건(13%)으로 각각 2위와 3위로 뒤를 이었다.

구조인원은 전년과 다르게 승강기 사고가 전체 구조인원의 25.2%(2만9130명)로 가장 높았고 교통사고가 19.3%(2만2289명)로 뒤를 이었다.

계절별로는 여름철(7~9월)과 가을 행락철(10월)에 전체 구조건수의 50.2%(32만8883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구조인원도 피서객과 산행 등 행락객이 많은 같은 시기에 전체구조인원의 39.2%를 차지했다.

소방청은 "여가문화 확산으로 레저연령 폭과 활동영역이 보다 넓어지면서 수난산악안전사고와 벌집관련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뉴시스

생계형 절도 알코올 중독자 재기 돕는다
광주 광산구 · 경찰서

식료품값을 마련하려고 자전거를 훔친 50대 알코올중독자에게 경찰과 구청이 새 삶의 의지를 불어넣어주기로 했다.

12일 광주 광산구와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A(54)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전 7시46분께 광산구 한 가게 앞에 세워진 2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절도)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자진 출석한 A씨는 "자전거를 팔아 술과 음식을 사 먹으려고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은 A씨가 절도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전거를 돌려받은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조사 과정 내내 "죄송하다"며 반성하던 A씨의 딱한 사정도 알게됐다.

경찰은 A씨가 사실상 삶의 의욕을 잃고 사회와 단절돼 살아온 것으로 보고, 광산구 도산동주민센터에 이 같은 사정을 공유했다.

도산동주민센터는 A씨를 알코올전문 치료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돕고 있다. 주거지 임대료와 생계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광산경찰서 강력5팀도 A씨의 집을 찾아 청소를 도왔으며, 설명절을 앞두고 컵라면과 귤 등을 전달했다.

임형택 기자

평창 올림픽 성공을 응원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12일 오후 강원 강릉올림픽파크 라이브사이트에서 세계 각국 문화가 담긴 이색 응원 복장을 한 초등학생들이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퍼레이드 및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교육부, 전교조 노조전임 신청교사 33명 휴직 '불허'

"대법원 판결 지켜봐야"

2016년 1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에 노조 전임을 신청한 교사 33명에 대한 휴직신청서를 냈지만 퇴짜를 맞았다.

교육부는 12일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교조가 1일 신청한 노조 전임자 휴직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 전임 휴직 허가는 위법이라는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교육부가 휴직을 불허한 전교조 노조 전임 신청 교사는 16개 시·도교육청 27명과 본부 6명 등 총 33명이다.

앞서 전교조는 올해 노조 전임을 신청한 교사 33명에 대한 휴직신청 공문을 이달 1일 교육부에 발송했다.

전교조는 5일 "2018년 노조 전임자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전교조 본부는 이달 1일 교육부에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 해고자 복직 촉구, 2018년 전임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공개한 전임 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임 신청자 총 33명중 14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임을 신청했다. 나머지 19명은 올해 새롭게 전임을 신청한 교사다.

지역별 전임 신청 교사는 경기 1명, 경남 1명, 광주 1명, 대구 1명, 대전 1명, 부산 1명, 서울 3명, 울산 1명, 인천 1명, 전남 3명, 전북 1명, 충남 1명, 충북 3명 등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와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속에서 교육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전교조에 많은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中 베이징, 흉기난동에 70만 동원 치안순찰

중국 수도 베이징시 당국은 시내 한복판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70만명의 보안 인력을 동원해 치안 순찰에 나섰다고 홍콩 성도일보(星島日報)가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베이징시 사회치안종합치리 판공실(종치판)을 인용해 전날 밤 9시를 기해 시내 전역에 1급 치안 경계령이 내려지면서 20만명이 즉각 출동해 순찰을 시작했고 이날부터는 70만명이 투입됐다고 전했다.

종치판 책임자는 11일 시청(西城)구 상업지구 시단(西單)에 있는 다웨청(大悅城) 쇼핑몰에서 30대 남성이 예리한 흉기로 손님들을 무차별로 공격,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한 것을 중시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시 치안 당국은 향진과 사구의 간부, 치안 인력 등을 총동원해 교통 요지와 야간 영업소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종치판 간부를 각지에 파견해 순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순찰 인력은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발견한 즉시 상부에 보고해 경찰, 공안 등과 함께 이를 처리하면서 사회질서 안정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앞서 11일 오후 1시께 시청(西城)구 상업지구 시단(西單)에 있는 다웨청(大悅城) 쇼핑몰에서 올해 35세인 주(朱)모씨가 예리한 도구로 손님들을 무차별로 찔렀다.

여성 부상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남자 3명과 여자 9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를 붙잡았다. 초동조사 결과 허난성(河南)성 저우커우(周口)시 시화(西華)현 출신인 주씨는 개인적인 불만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통가, 5등급 사이클론 상륙 앞두고 비상사태

남태평양에 위치한 통가가 11일(현지시간) 사이클론 '기타'(gita) 상륙을 앞두고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

통가 정부는 이날 오전 4등급 기타가 접근하고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기타는 몇 시간 내 최고 수준인 5등급으로 강화돼 이날 저녁 통가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통가 적십자 관계자 폴리칼레포 케푸는 "5등급 폭풍이 본섬을 강타한 전례가 없다. 폭풍이 얼마나 강력할지 아무도 모른다"며 "관광객 대다수가 대피해 관계 당국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통가 국립 재난관리청(NEM)은 기타가 시간당 최대 풍속 200km의 강력한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다며,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에게 서둘러 대피하라고 당부했다.

세미시 시카 통가 총리 대행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사이클론에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기타는 지난 주말 통가 인근 사모아에 상륙했을 때만 해도 1등급이었지만 계속 위력을 키우고 있다. 사모아에서도 사이클론으로 단전과 통신 두절 피해가 잇달았다.

러 여객기 모스크바 인근 추락 "전원 사망"

1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동쪽 외곽의 도모데도보 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한 안토노프(An)-148 여객기의 탑승객 71명은 전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타스통신과 인테르팍스통신 등이 전했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 65명, 승무원 6명 등 모두 71명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항공청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 남부 사라토프 항공사 소속인 An-148는 이날 오후 2시24분 남부 오렌부르크 주의 오르스크로 가기 위해 도모데도보 공항을 이륙했다. An-148는 그러나 몇 분 뒤 통신이 두절됐고 레이더에서도 사라졌다고 항공청 관계자는 밝혔다.

여객기 잔해들이 도모데도보 공항에서 40km 떨어진 라멘스키 지역 스테파놉스코예 마을 벌판에서 발견됐다.

막심 소콜로프 러시아 교통장관은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컨대 생존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가족 친지들 생체조직을 이용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시스